

# 美, 마두로 압송…“정권이양까지 베네수 통치”

한밤중 특수부대 투입·안가 급습…작전명 ‘확고한 결의’

“미석유기업 진출해 인프라 재건”…망명 야권인사 지지

미국이 3일(현지시간) 전격적인 군사 작전을 통해 베네수엘라의 ‘철권통치자’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하고 미국으로 압송했다.

미국은 이날 오전 1시께(미 동부시간 기준) 베네수엘라 수도 카리카스에 있는 대통령 안전기옥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체포해 헬리콥터로 실어 나른 뒤 대기 중이던 강습상륙함 이오지마에 옮겨 태웠다.

‘확고한 결의’(Operation Absolute Resolve)로 명령된 이번 작전에서 미국은 사방구 소재 20개 지상·해상 기지에서 출격한 150대 넘는 항공기를 동원했다. 교전 과정에서 미국 측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두로 대통령은 결박당한 채 미국으로 압송됐다. CNN과 MS NOW 등 미국 매체들은 이날 오후 마두로 부부를 태운 항공기가 뉴욕주의 ‘스튜어트 주방위군 공군 기지’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미미 ‘미야 테러리스트’ 등의 혐의로 2020년 기소된 마두로 대통령 부부는 뉴욕 또는 마이애미 법원에서 재판받을 예정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했다.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에서 5000만 달러(약 723억원)의 현상금이 걸린 형사재판 피고인이라는 점은, 외국 영토를 공격해 정상을 체포·압송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

이라는 비판에 대한 미국 측 대응 논리다. 마두로 체포 주체도 미국 법무부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마리라고 자택에서 기자회견 열어 마두로 대통령이 축출됐다면서 “안전하고 적절하며 현명한 (정권) 이양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나라(베네수엘라)를 운영(run) 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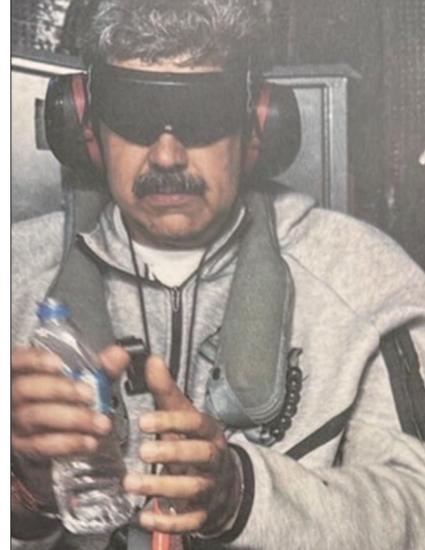
이어 “우리는 지금 베네수엘라에 있으며, 적절한 이양이 이뤄질 수 있을 때까지 남겠다”며 “한 그룹(의 사람들)과 함께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그룹’과 협력할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그는 마차도에 대해 “현재로선 그녀가 지도자로 되기는 매우 어렵다. 국내에서 지지나 존경이 없다. 매우 좋은 여성이나, 존경받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차도와 합세해 지난 2024년 대선에서 마두로 대통령의 3선을 위협했던 맹명 정치인 에드문도 곤살레스로의 정권 이양을 지지하는 소셜미디어(SNS) 계시물을 리트윗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정권 이양과 병행해 미국 석유 회사들이 현지에 진출해 원유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과도 통치 및 국가 재건 자금을 마련하고, 미군 병력도 물리적 역할을 하게 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근황 사진을 트루스소셜에 공개했다.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현지시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확고한 결의’ 작전 진행 상황을 참모들과 함께 시켜보고 있다. 뉴시스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함대는 현재 위치(베네수엘라 인근 해상)에서 대기 대세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모든 군사적 선택지를 보유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필요하다면 훨씬 더 큰 규모의 2차 공격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요구가 완전히 충족될 때까지 베네수엘라의 모든 정치인과 군인들은 마두로에게 일어난 일이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베네수엘라에 “아주 규모가 큰 미국의 석유 회사들이 들어가서 수십억 달러를 들여 심각하게 파괴된 석유 인프라를 복구할 것”이라며 “(그 회사들은) 그 나라를 위해 돈을 벌기 시

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의 “상당 부분이 25년 전 우리가 설치한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교체할 것”이라며 인프리를 복구해 “석유를 훨씬 더 큰 규모로 팔게 될 것”이고, 이 돈으로 “나라를 돌보겠디”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석유 회사들이 인프라를 복구하고 원유 생산을 늘리는 과정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지상군 주둔도 “약간 필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면 지상군을 두는 것이 두렵지 않다”며 “우리는 사실 아랫밤(마두로 체포 작전 당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지상군 투입을 했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마두로 축출’ 짜장 속 시위

북한이 4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참이 밝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발표 직후 이뤄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일에 맞춰 이뤄진 무력 시위다.

일본 방위성이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추정 물체가 일본의 배타적 경계수역(EEZ) 바깥쪽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한 점으로 미뤄 사거리 300~1000km 수준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추정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처음으로, 지난해 11월 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국빈 방문길에 오르는 날에 이뤄졌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군사작전을 통해 반미 성향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축출했다고 발표한 직후에 이뤄진 발사이기도 하다. 북한은 미국과 적대적 관계라는 점에서 베네수엘라와 같은 처지이지만,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베네수엘라와는 다른 군사력을 갖췄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무력시위 성격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2026년  
행운과 기영안을 기원합니다

컨설팅 · 설치 · 인허가 · 리파워링 · 유지보수

빛이 수익이 되는 순간!

태양광 에너지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

(주)TH홀딩스

☎ 대표번호 : 062-953-8311 / 010-4572-7164

